

매일묵상일기

가정에배

매일묵상일기 · 가정에배 자료

“거룩함과 헌신을 단련하는 결혼”

2026년 5월 22일(금)

- 찬송 (440) 다함께
- 기도 가족 중에서
- 성경 (고린도전서7:1~16) 다함께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고전7:14)

- 묵상자료 인도자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육체는 악하므로 부부간에도 성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극단적인 영지주의적 금욕주의자들과, 무분별하게 성적 자유를 추구하는 자들이 혼재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 결혼의 신성함과 부부간의 의무, 그리고 평화를 강조합니다. 2천 년 전 로마와 유대 사회는 철저한 가부장제 사회였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소유물처럼 여겨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남편만 아내에게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아내도 남편의 몸에 대한 동등한 소유권과 권리를 가진다고 선언합니다. 주 안에서 남녀가 완벽하게 평등하며,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언약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내 몸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배우자에게 양도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불신 배우자 때문에 네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의 거룩함 때문에 불신 남편이, 불신 아내가 거룩하게 된다고 선언합니다. 빛이 어둠에 들어가면 어둠이 빛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병환자의 몸에 손을 대시는 순간, 예수님이 더러워지신 것이 아니라 나병환자의 살이 깨끗해졌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파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된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격과 삶을 통해 흘러가는 거룩한 은혜가 그 불신 배우자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며 거룩한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결혼한 부부에게 주는 권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가족 구원을 위해 나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 기도 인도자

하나님! 내 몸과 내 삶의 권리를 하나님께, 그리고 배우자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책임 있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로 인해 눈물 흘리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어, 나의 거룩한 삶을 통해 가정 전체가 구원의 은혜안으로 들어오는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다함께